

폐교까지 법으로 관리... 교육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강화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 잔여재산 귀속·청산인 선임 등 적용 대학 구성원 보호 규정도 포함

교육부가 재정진단부터 폐교·청산까지 사립대 구조조정 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를 열되 학생·교직원 보호와 비리 차단 장치도 함께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2026년 8월 15일)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은 오는 8월 15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한시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재정난을 겪다가 결국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전경.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메트로신문 DB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함께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담고, 폐교·해산되는 학교와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과 청산인 선임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상위법인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에는 사립대학교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재정진

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구조개선 명령,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전담기관 지정, 잔여재산 귀속 특례, 폐교 구성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사립대학교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은 국회 추천으로 채워진다.

시행령안은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직원, 연구자 등 대학 구성원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폐교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 보호 조치도 마련한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횡령과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도 뒀다. 해당 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재산 출연 이후라도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립대학교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첨단 마이스터고 매년 1곳씩 늘린다

서울시교육청, 직업교육 4개년 계획 AX 특성화고 2029년까지 20교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를 매년 1개교씩 확대하는 내용을 축으로 한 직업교육 4개년 계획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고 학생 비중 축소 속에서도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춘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 직업교육 종합계획(2026~2029)'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함께 만드는 직업교육', '성장하는 학생', '미래를 여는 기술'을 비전으로 ▲학생 성장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K-직업교육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의 표준, 질 높은 서울직업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기술교육 ▲학생 보호 중심의 안전한 직업교육 등 5개 중점 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확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3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인 서울반도체고 개교를 시작으로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를 매년 1교씩 확대해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대학 연계를 바탕으로 '첨단공동교육연구센터'를 2030년 상반기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피지컬 AI와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진의 설계 역량과 학생들의 유지보수 실무교육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Lab to Class' 모델도 도입한다.

교육과정 개편도 본격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접목되는 흐름에 맞춰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실무 생산성을 높이는 'AX 중점 특성화고'를 올해 5개교에서 시작해 2029년까지 20개교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대학 강의를 무료로... '구독대학' 확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배 늘려

서울권 대학의 전공 강의를 시민이 무료로 듣는 서울형 대학 연계 평생교육이 올해 참여 대학과 강좌를 대폭 늘리며 본격 확대된다. 직업역량 중심의 대학 연계 교육 체계에 더해 인문·교양 분야 시민 선택권을 넓힌 '구독대학'이 10개 대학에서 30개 강좌 규모로 마련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이 원하는 대학의 강좌를 골라 수강할 수 있는 '구독대학'의 올해 참여 대학 10개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구독대학은 총 30개 강좌, 약 8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15개 강좌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로 확대됐다. 현재는 1차로 4~5월

개강 강좌 8개를 대상으로 약 21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 강좌도 순차적으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구독대학은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민이 원하는 대학과 강좌를 '구독'하듯 선택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 연계 평생교육을 직업역량 중심의 '서울마이크라지'와 인문·교양 중심의 '구독대학'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구독대학은 서울권 대학의 전공 기반 학문 강좌를 시민이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명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10개교다. /이현진 기자

인천관광공사, 웰니스관광지 7곳 선정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도약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특화 웰니스 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와 회복을 제공할 '2026년 인천 웰니스관광지' 7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 웰니스관광지는 총 35개소로 확대되며,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치유관광 클러스터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2026년 4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공모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기존 및 신규 관광지를 연계해 강화·영종·송도·도심 등 4대 권역을 잇는 '인천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

을 넘어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선정된 웰니스관광지는 총 6개 테마로 구성됐다.

스테이 분야에서는 강화바다와 돌담 풍경 속에서 특산물 차와 함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스토나리 호텔앤리조트'가 이름을 올렸다.

웰빙푸드 분야에는 마니산 천연 효모로 빛을 증류주 페어링을 체험할 수 있는 '류 양조장'과 강화 순무를 활용한 쿠키 클래스가 가능한 '핑크김치'가 선정됐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오늘의 날씨

4월 7일 (화)

음력 : 2월 20일

수도권 날씨

3 ~ 1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09 | 해질 / 19:00

백령도 5/8 | 파주 0/14 | 인천 4/12 | 수원 3/13 | 평택 1/12

연천 0/13 | 동두천 1/13 | 가평 0/13 | 서울 3/13 | 양평 1/14 | 용인 3/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아프리카연합(AU), "중동전쟁이 아프리카 경제의 최대 위협"
 ▲이스라엘·걸프 방공망 선방했지만... "요격 미사일 부족"
 /사진 뉴시스

▲中청명절 8억4000만명 이동 전망...귀경길 혼잡 정점
 ▲백악관에 남은 미일 정상회담 대만 문구... "미일 사전 협의 반영"

▲中·파키스탄, 연합 해상훈련...중동 중재 속 군사협력도 병행
 ▲日다카이치 "이란 정상회담 적절한 시점에 추진"...美와 통화에도 의욕